

# 증권株, 트럼프 관세 리스크 영향 미미... 안전투자처로 '주목'

KRX증권지수, 지난달 6.18% ↑  
대형사 중심 수익성 개선 가능성  
금투세 폐지 등 우호적 환경 조성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적은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증권업의 밸류업 모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지난달 6.18% 상승하며 같은 기간 4.91% 오른 코스피 지수를 웃돌았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11.50%)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키움증권(7.75%), 미래에셋증권(4.98%), 삼성증권(4.83%), NH투자증권(3.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주에 환호하는 투자자 이미지.

자들의 매수세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도 지난달 키움증권을 300억여어치 순매수했으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151억원, 27억여어치 사들였다. 기관투자자들 역시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422억원), NH투자증권(268억원) 등을 적극 매입했다.

증권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배경에는 증권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에서 증권업은 제조업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내

수 기반 산업이자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사업 역시 국내 투자은행(IB)에 집중돼 있어, 보편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스피 상장사들이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되는 것과 달리, 증권업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유례없는 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당금 및 해외 부동산 감액손실 반영도 크게 완화되면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거뒀을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국내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16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2% 감소했

나,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58조 원으로 34.9% 증가하며 매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준속 의지를 밝힌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밸류업 2차 공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삼성증권 역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동 연구원은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연간으로도 증권업의 밸류업 모델이 존재한다"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이의 체력이 돋보이는 한국금융지주와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매력을 갖춘 삼성증권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트럼프·딥시크發 변동성에 안전자산 강세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 13만520원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8.65% 올라  
中 딥시크 쇼크에 금 ETF 상승세  
머니마켓액티브 ETF 매수도 박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딥시크 쇼크'로 인한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변동성 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이 다.

2일 한국거래소 국제금시세 동향에 따르면 가장 최근거래일(지난달 31일)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은 종가는 13만520원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 등의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7일(g당 12만130원) 이후보다 8.65% 상승한 가격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도 장중 한때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에 세운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러한 금값 상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트리거가 됐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발생한 '딥시크 쇼크'로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한 가운데, AI 인프라 기업 주가 하락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는 자금 유입세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430원(2.32%) 오른 1만8975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약 11.49% 상승한 가격이다.

투자자들은 금외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머니마켓액티브 ETF 매수에 적극 나섰다. 파킹형 ETF로 분류되는 이 상품은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며, 편입

과 편출이 용이해 단기 자산 운용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한 대피처로 활용되며, 손실 위험이 작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ETF 상품 전체 중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인 ETF는 KB자산운용의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2210억원이 순유입 됐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 EX 머니마켓액티브' ETF에도 232억이 순유입 됐다. 설 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31일 하루 만에 해당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미 10년 금리가 4.8% 수준까지 상승함에도 금값은 큰 조정 없이 견조한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 방어 등은 올해에도 유지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 금가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값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증권금융,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실시

우수 인재, 핵심 부서장·팀장 보임  
디지털 본부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

한국증권금융이 디지털 및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을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증권금융은 부서장의 75% 이상, 팀장의 56% 이상을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핵심 부서장 및 팀장으로 보임해 조직혁신의 추진력을 확보

하고 성과 중심 문화 정착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신규임용된 부서장은 총 7명이며, 팀장은 12명이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이 활용될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본부를 신설하면서 기존 6개 본부에서 7개 본부로 확대됐다. 더불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본부 편제도 추진됐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능별 조직 강화를 위해 디지털전략부, 외화금융부, 투자전략실 등을 신설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형사처벌 대상"

### 금감원 Q&A

자본시장법 제174조 근거로 들어  
공개매수 정보이용 고발 사례 있어

"내 월급 빼고 다 올라!"라는 불만, 다들 한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부동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재테크 대안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아무 정보나 막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최근에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에 대한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공개매수 대상 주식을 매수해두었다가 공개매수 실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한 것이지요. 이러한 주식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근거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매수'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한 뒤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

## 어닝서프라이즈에 주주환원까지... 목표주가 줄상향

### metro 관심종목 현대모비스

3분기 이어 2개 분기 연속 호실적  
총주주환원을 30% 수준 이행 기대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하반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주목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지난달에 11.41% 급등했다. 1월 24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4.56%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26만원대 진입했다.

지난달 23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한 14조7107억원, 영업이익은 88.5% 증가한 986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후 서비스(AS)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S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한 3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리포트를 낸 16개 증권사 중 9개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는 TSR 30% 이상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이행안으로 2025년에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